

## 제2의 에이즈 위험대륙, 아시아

□ 편집실

현재 전세계 에이즈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이어 아시아를 제2의 에이즈 위험지역이라 선포하며 에이즈 확산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아시아 성인의 에이즈 유병률은 0.4%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감염인구가 많아 에이즈 급증에 대한 불안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이 많아 가난, 성불평등,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사회적 현안이 에이즈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미래는 낮은 유병률로 인해 여느지만은 않다. 아시아의 국가들이 현재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향후 에이즈 전망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마약주사기, 성매매가 HIV 감염확산의 주범

아시아는 국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에이즈 양상을 띠고 있다. 에이즈 발견 초기부터 피해를 입었던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에이즈 문제가 불거져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중국의 몇몇 도시들이 있다. 또한 세계가 우려의 눈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도, 중국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파키스탄,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도 있다.

아시아에서 에이즈 전파의 주요 원인은 마약주사기 공동사용과 성매매이다. 인도, 중국의 남부지역,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등지는 마약주사기 공동사용으로 인한 HIV 확산이 우려되는 국가들이다.

UNAIDS에 따르면 2002년 중국 광둥·광서지역의 6개 도시에 거주하는 마약주사 사용자의 HIV 유병률은 15~56%로 조사되었다. 이듬해인 2003년 중국에이즈성병예방관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쓰촨성의 여성마약주사기 사용자의 47%, 윈난성 인근지역에서는 21%가 마약이나 돈을 위해 성매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타밀나두 지역 성매매 여성의 50%는 HIV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니팔 시의 임팔과 처라찬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산모의 에이즈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1% 이하에서 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그 산모 중 많은 이의 파트너가 마약주사기를 사용하는 감염인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는 마약주사기 사용자의 88%가 살균이 안 된 주사기나 주사바늘을 사용하고 그들 중 1/3정도만이 그 행위가 HIV 감염우려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수도 자카르타의 마약주사기 사용자 2명 중 1명은 HIV 양성자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호치민 시의 성매매 여성의 38%가 마약주사기를 사용하며 그들 중 49%는 HIV에 감염(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성매매 여성은 8%)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문제는 마약주사기 사용자나 성매매를 하는 여성 등 에이즈 위험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예방책이 콘돔인지 모르거나 알고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추세는 이들의 지속적인 고위험행위(살균되지 않은 마약주사기 사용, 안전하지 않은 성구매 등)를 통해 그 파트

표1\_ 2004년 세계 HIV/AIDS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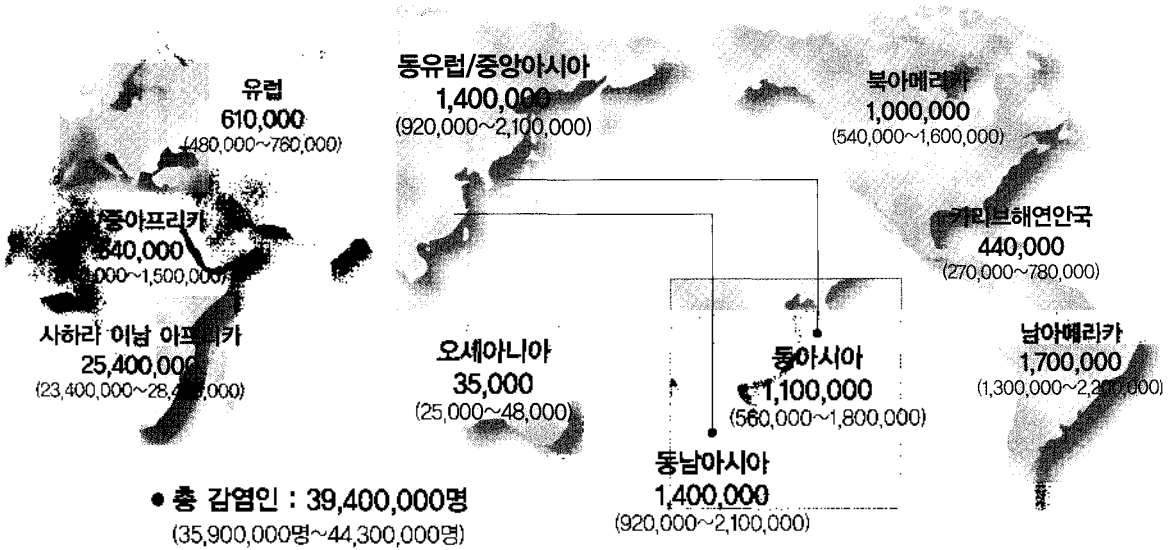


표2\_ 2002년과 2004년 아시아의 에이즈 현황 (단위 : 명)

	감염인/환자 수	여성감염인 수	신규 감염인 수	성인 유병률	사망자수
2004년	8,200,000	2,300,000	1,200,000	0.4%	540,000
2002년	7,200,000	1,900,000	1,100,000	0.4%	470,000

너가 감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 명의 파트너와 꾸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으로 전파되어 여성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 태국, 캄보디아 HIV 감염 감소 추세

증가세의 아시아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신규 발병률이 줄어드는 국가도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그 경우이다. 캄보디아는 성매매의 위험성을 알리고 콘돔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성을 구매하는 남성의 비율을 줄였고, 젊은이들의 콘돔 사용률을 높였다. 태국의 경우 에이즈 기금마련, 정치적 후원, 실제적인 대응정책 등을 통해 성인

의 HIV 유병률이 점차 낮추고 있다. 2003년 말 UNAIDS 통계에 따르면 태국의 성인 유병률은 1.5%(0.8%~2.8%)였다.

현재 아시아에는 8백2십만 명이 HIV에 감염된 채 살아가고 있다. 리처드 기어나 클린턴 등 유명인사들이 인도의 에이즈 예방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에이즈 상황을 극복하도록 3천5백만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아시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UNAIDS에서 분석한 대로 낮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아시아의 미래는 현재의 아프리카 대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AIDS epidemic update (UNAIDS, 2004))